

제목 : 小學校 운동회

한국에서는 아주오래전부터 소학교에서 매년 가을이면 운동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내가 小學校에 다닐때에는 가을 운동회가 학교 주위에 있는 온마을의 어른, 아이 모두의 즐거운 축제날이었다.

운동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약 2시간씩, 2개월 전부터 연습을 한다. 뜨거운 햇빛아래에서 연습을 하다보면 항상 얼굴은 검게 그을려서 다녔다.

운동회 준비를 위해서 선생님들도 항상 학생들에게 무용과 달리기, 기마전 등 여러가지를 열심히 연습을 시키신다.

여러 마을의 어른들과 학생들, 선생님 한마음이 되어서 운동회가 개최된다.

운동회는 학교에서 개최되는 축제중에서 가장 큰 축제날이기도 하다.

운동회 날에 빼놓을수 없는것중의 하나가 마을대항의 어른들의 마라톤과 청·백으로 나누어서 하는 학생들의 마라톤이다. 마라톤이 운동회날 청·백으로 해서, 우승이 결정되는 가장 큰 점수이다.

운동회날 빼놓을수 없는 것이 있다. 점심시간이 잊을 수 없다. 요즈음에는 小學校 운동회에 가보면 점심시간이 없이 오전중으로 대부분이 끝난다.

내가 小學校에 다닐때는 운동회날 즐거움중의 하나가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다.

운동회날 점심준비를 위해서 어머니는 며칠전부터 여러가지 음식준비로 바쁘셨다.

운동회날 점심은 온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밥을 먹는 즐거움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잊을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의 小學校운동회는 봄, 가을로 대부분의 小學校에서 一年에 2번 한다.

그렇지만 예전에 내가 小學校 다닐때에 운동회하고는 비교가 안된다.

요즈음에는 학생들만이 운동회를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마을의 축제가 아니라 점심시간도 되기전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즈음은 학생들이 어른이 되고나서 小學校 운동회의 추억은 없을것같다.

나는 小學校때의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운동회라고 말할수 있다.